

축 사

(신지면 경로잔치)

2022. 10 . 25.(화) 11:00 /게이트볼장

존경하는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스물여섯 번째 맞이한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장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가운 마음이 평소보다 더 깊고 더 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작년에 뵈었던 어르신 몇 분이 오늘은 볼 수 없게 된 안타깝고 서글픈 현실을 맞이하고 보니 세월이 야속하고 원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내년 경로잔치는 여기 계신 모든 어르신들이 한분도 빠짐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꼭 뵈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아버님, 어머님!

오늘날 이렇듯 풍요롭고 살기 좋은 완도를 만들어낸 주역이 누구입니까? 바로 어르신 여러분입니다.

보호대를 아무리 졸라매도 펴지지 않는 굽은 허리와, 지문마저 닳아 없어진 거칠어진 손마디로 가난을 물리치고 우리 젊은 이들에게 풍요를 주셨습니다.

그 옛날 어려움을 어찌 말로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풍요를 누리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어르신들의 희생과 헌신을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버님, 어머님!

앞서 군수님께서 언급하셨다시피 우리 신지면에 건립하고 있

는 해양치유센터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해양치유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운영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신지면 어르신들은 접근성이 좋아 국내 최고의 건강증진 기반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군 의회는 어르신들께서 경제적으로 큰 부담 없이 치유센터를 편리하게 이용하는 혜택이 주어지도록 하나하나 챙겨가겠습니다.

바로,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행복한 완도가 우리 완도군의회가 바라는 완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군 재정 여건임에도 성대하게 경로잔치를 마련하도록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시고

특히, 1,240억원의 국비가 투입되는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을 유치하는 쾌거를 거두신 신 우철 군수님께 감사와 격려의 큰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김 성 수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단상을 내려가기 전에 우리 어르신들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큰절 한번 올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요!(큰절)